

지역 소식통

정읍시 · SK넥실리스, 청년 창업 교육 20개 팀 모집

정읍시와 SK넥실리스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정읍 원도심을 더 활기치게 만들기 위해 조인 정읍(Joy'n 정읍) 로컬 청년창업 교육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 조인정읍은 정읍시와 SK넥실리스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지역 재발전 활성화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에는 청년로 썬을 시장 인근에 예비 청년 창업가와 로컬 창작자를 위한 공간 '공유가게 1·2호점'을 조성하기도 했다.

조인정읍 청년창업 교육은 정읍 지역 청년창업가의 가계 운영 경험과 노하우 향상,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 정읍 원도심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가와 3년 이내의 기창업가 20팀을 대상으로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60% 감면 추진

고창군이 코로나19 대응방안의 하나로 올해에도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지역업자로 2020년 4월 고지분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60%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영업 제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고창군청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경제 활성화를 조금이나마 도우미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유진섭 시장, 용산호 ·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장 현장 점검

정읍시가 쉽고 즐거움이 어우러진 휴식·치유·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유진섭 시장이 16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용산호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장 7개소를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물론 현장 근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다.

유 시장은 이날 정읍시 1,000만 관광

살폈다. 또, 사업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다.

특히,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용산호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용산호와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접근성 향상과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산호 수변생태공원과 미르생 분수 설치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고,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 도시로서 경쟁력 상상을 위해 공사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15일 현재 정읍시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외면 지역에는 최고 7.8cm(08시 기준)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다.

## 빈틈없는 제설작업 ‘총력’

정읍시, 장비 16대 동원 · 전 직원 제설작업 등 신속 대응

15일 현재 정읍시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외면 지역에는 최고 7.8cm(08시 기준)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다.

이번 눈은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후(17시)부터 다시 눈이 내리면서 내일(17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눈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초동 조처에 나섰다.

시청 전 직원은 밤새 내린 눈과 기온 급강하로 결빙된 도로의 사고위험을 사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서둘러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각 실·과·소별 담당구역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와 보도의 취약 구간을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펼쳤다.

또, 주민들의 능동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지역 내 설치된 제설함 곳곳마다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비치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새벽 4시부터 제설장비 16대를 동원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도로변 결빙 예방에 힘을 쏟았다.

또한, 초동 제설작업에 효과적인 자동 염수 살포 장치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했다.

특히, 급경사 도로인 말고개와 싸고 개로를 비롯해 용호터널과 샘골터널 등 6개소의 열선 도로에 열을 가해 영상 온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출근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제설작업에 동참해준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제설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 시설물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 제9회 부안마실축제, 5월 온 · 오프라인 개최

제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22년 제9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5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달여간 매창공원 일원과 부안비실축제 홈페이지 및 유튜브 '부안축제'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부안비실축제 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부안비실축제를 즐길 수 있는 개최방식 등을 논의했으며 오는 5월 한달간 부안마실축제를 소규모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전위는 올해 부안비실축제의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13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부안비실축제의 특징으로는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하는데 방점을 두고 부안민의 색깔을 살려 진행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이 거리를 두며 관람 가능한 NEW 별빛마실, 바람꽃 길, 마실소망 빛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산·

물·바다가 아름다운 부안의 특색을 살려 관람객들에게 부안민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온라인 프로그램은 '마실'의 정체성을 살린 '마실'이 알고 싶다, 우리 마을 뽀내기 대회' 등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우리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김종문 제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관람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참여객 모두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 중대재해 예방 포설 속 주요 건설현장 점검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건축물 붕괴사고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권익현 군수는 16일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도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종합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장비관리와 수급상태,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에 입각한 관리와 감독을 동행한 관계자들에게 지시 당부했다.

50여년 만에 새롭게 신축되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은 오는 8월 완공 예정이며 지상 2층 연면적 1772㎡ 규모에 판매시설 및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돼 교통·문화터미널로 변신할 예정이다.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이 완공되면 부

안의 교통·문화·상권의 허브(hub)로서 인근의 부안복합커뮤니티와 더불어 부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 상권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각종 공사현장을 물론이고 군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더욱 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든든한 해결사 호평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홀로 어르신들 비롯한 소외계층의 믿음직한 해결사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기동처리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종합민원과 민원팀과 읍·면 사무소에 전화한 통화만 바로 출동한다.

전기(전등·콘센트 교체 등), 상수도(주방·화장실 수전교체 등), 집수리(방충망·문고리·문경첩 교체 등) 등 생활민원 전반을 다룬다.

특히 보일러 수리, 도배 지원 등 자칫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주면서 호응도가 높다.

기동처리반은 지난해 보일러 99건, 상하수도 228건, 전기 233건, 도배 351건, 집수리 189건으로 모두 1100건의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했다. 또 서비스 만족도조사로 개선점을 찾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8명의 도배지원봉사자를 선발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